들어가기

죄 죽이기 1편 구원받았는데 왜 아직 죄와 싸워야 해? · 오웬과 로마서 8장 13절

해제(8~28쪽) · 저자 머리말(29~32쪽) · 1장 죄 죽이기의 근거 본문: 로마서 8장 13절(33~41쪽)

❓ 믿으면 구원받는다면서, 왜 나는 아직도 같은 죄에 넘어질까?

🧭 흐름 한눈에

구원에는 두 가지 면이 있다. 하나는 신분이 바뀌는 칭의이고, 다른 하나는 바뀐 신분대로 살아가는 성화다. 『죄 죽이기』는 이 가운데 성화, 곧 이미 믿은 사람 안에 남아 있는 죄를 다루는 책이다. 오웬은 방황 끝에 복음의 평안을 맛본 목회자였다. 그는 1656년 옥스퍼드에서 영적으로 느슨해진 학생들과, 복음 없이 짐만 지우는 가르침을 함께 마주하며 이 강론을 했다. 그는 책 전체를 로마서 8:13 한 구절 위에 세우고, 그 구절에서 의무·대상·약속·수단·조건의 다섯 요소를 찾아낸다. 그중 "~한다면"은 "못 하면 버림받는다"는 위협이 아니다. 성령으로 죄를 죽이는 일과 생명이 확실히 이어져 있다는 약속이다. 그래서 내가 아직 넘어진다는 사실은 내가 가짜라는 증거가 아니다.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성령과 함께 평생 걸어가야 할 싸움터가 거기 있다는 표시다.

• 지침 카드

📜 절별 정리

📜 1. 칭의는 신분, 성화는 삶: 이 책은 '믿는 사람'의 죄를 다룬다 (해제)

역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서 출발한다. 칭의는 하나님이 믿음을 근거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셔서 신분을 바꾸시는 일이다. 그렇게 신분이 바뀐 사람에게 “그럼 이제 어떻게 살까”를 묻는 것이 성화다. 원제 『신자들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것에 대하여』가 보여 주듯, 이 책은 불신자의 회심이 아니라 이미 믿은 사람 안에 남아 있는 죄를 다룬다. 역자의 정리에 따르면, 오웬은 로마서 7장을 성령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싸우는 신자의 모습으로 읽는다. 그러니 믿은 뒤에도 같은 죄와 씨름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개혁파의 견인 교리에 따르면 참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분은 죄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 안에 심긴 새 생명은 반드시 싸움과 열매로 드러난다. 역자는 오늘의 교회가 이 내면의 싸움을 사회적 처신 중심의 '기독교 윤리'로 바꿔 버렸다고 진단하고, 이 책이 그 빈자리를 채운다고 본다.

1. 칭의는 신분, 성화는 삶의 문제다
2. 이 책은 신자 안에 남은 죄를 다룬다
3. 믿은 뒤의 싸움은 신자의 정상 상태다
4. 신분은 죄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
5. 새 생명은 싸움과 열매로 드러난다

> **★로마서 8:13**
> 책의 주제 본문. 이 의무의 대상은 '너희', 곧 신자다

> **★로마서 7:18-25**
> 역자가 정리한 오웬의 읽기: 선을 원하지만 죄와 싸우는 신자의 모습

📜 2. 오웬은 누구인가: 방황 끝에 복음의 평안을 맛본 사람 (해제)

존 오웬은 1616년 청교도 가정에서 태어나 일찍 옥스퍼드에서 공부했다. 그러나 비국교도를 탄압하던 로드 대주교 때문에 학교를 떠나야 했다. 역자에 따르면 그 무렵 그는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두고 오래 방황했다. 그러다 런던의 한 교회에서 이름 없는 시골 목사가 마태복음 8:26을 설교하는 것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공직에서 쫓겨나 저술에 전념했다. 죄와 싸우는 법을 가르친 이 사람은 책상 위의 이론가가 아니라, 불안과 상실을 지나며 복음의 위로를 직접 붙잡은 사람이었다.

1. 1616년 청교도 가정 출생
2. 긴 영적 방황을 겪었다
3. 무명 목사의 설교로 평안을 얻음
4. 학장·부총장, 그러나 깊은 상실
5. 1683년까지 쓰는 것이 곧 삶이었다

> **마태복음 8:26**
> “믿음이 작은 자들아” — 오웬이 방황 끝에 평안을 얻은 설교 본문(역자의 전기적 소개)
>
>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 3. 1656년 옥스퍼드, 왜 이 강론을 했나: 세 가지 이유 (해제 · 저자 머리말)

이 책은 오웬이 학장 시절 칼리지 예배당에서 10대 학생들에게 한 설교를 다듬어 1656년에 낸 것이다. 역자는 당시를 복음 설교는 많았지만 복음적 경건은 쇠퇴한 시대로 본다. 오웬은 머리말에서 출판 이유를 세 가지로 밝힌다. 첫째, 교인들이 세상과는 사이좋게 지내면서 성도끼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는 사는 모습이 마음 상태를 보여 준다고 보았고, 이 모습을 시험과 유혹을 이길 힘이 없다는 신호로 읽었다. 둘째, 복음과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은 모른 채 자기가 만든 죄 죽이기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방법은 사람들에게 “조상도 질 수 없던 멍에”를 지워 자기의와 양심의 불안만 낳았다. 셋째, 청중이 출판을 거듭 요청했고, 친구들에게 진 '글 빚'도 조금 갚고 싶었다. 오웬은 자기 삶의 목적이 먼저 자기 마음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안에서 죄가 죽고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머리말을 맺는다.

1. 10대 학생들에게 한 설교가 책이 됐다

3. 이유 2: 복음 없는 방법은 짐만 지운다
4. 이유 3: 성도들의 요청과 오랜 글 빚
5. 먼저 자기 마음에서 죄가 죽기를 원했다

> **사도행전 15:10**
> (표현의 암시) “조상도 질 수 없던 멍에” — 복음 없는 규칙이 지우는 짐
>
>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 **마태복음 11:29**
> (표현의 암시) 복음의 길은 영혼에게 짐이 아니라 '쉼'을 준다
>
>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 **고린도후서 9:10**
> (표현의 암시)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시는 이” — 설교의 열매를 하나님께 돌린다
>
>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 4. 책의 지도: 14장은 어디로 가는가 (해제)

역자는 14장을 여섯 덩어리로 나눈다. 1장은 근거 본문 로마서 8:13을 푼다. 2~4장은 세 가지 일반 원리로, 죄 죽이기가 평생의 의무이고, 오직 성령만 죄를 죽이실 수 있으며, 죄 죽이기에 영적 생명과 활력이 달려 있다는 것이다. 5~6장은 정의로, 먼저 죄 죽이기가 '아닌 것'을 걸러 낸 뒤 '무엇인지'를 밝힌다. 7~8장은 일반 지침이고, 9~13장은 아홉 가지 구체 지침이다. 14장은 직접 지침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라는 것이다. 역자는 앞의 모든 지침이 이 14장을 위한 준비라고 본다. 덧붙여 이 책은 오웬 성화론 4부작의 첫

2. 2~4장: 의무·성령·생명의 원리
3. 5~6장: 아닌 것을 걸러 내고 정의
4. 7~13장: 일반 지침과 구체 지침
5. 14장: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의지

> **★로마서 8:13**
> '너희'·'영으로써'·'죽이면 살리니'에서 2~4장의 세 원리가 나온다

> **로마서 7:21**
> 자매편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의 주제 본문(4부작 안에서의 자리)
>
>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 5. 토대 구절 하나, 다섯 요소 (1장)

오웬은 이 강론의 목적을 신자가 실제로 죄를 죽이도록 돕는 지침을 차례대로 주는 것이라고 밝힌다. 토대로 고른 구절은 로마서 8:13이다. 그는 이 구절이 놓인 자리부터 짚는다. 바울은 로마서 8:1-3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를 먼저 정리하고, 그 위에서 거룩함과 위로를 이야기한다. 순서가 중요하다. 칭의가 먼저 서고, 거룩함은 그 위에 세워진다. 오웬은 전반절(“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은 필요할 때만 언급하기로 하고, 후반절을 의무·대상·약속·수단·조건의 다섯 요소로 나누어 풀겠다고 예고한다.

1. 목적: 실제로 쓰는 지침을 주는 것
2. 토대: 로마서 8:13 한 구절
3. 칭의가 먼저, 거룩함은 그 위에
4. 의무·대상·약속·수단·조건
5. 전반절은 후반절을 풀 때만 쓴다

로마서 8:1-3

이신칭의를 먼저 요약한다. 거룩함은 칭의 위에 세워진다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3]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 6. "~한다면"은 불안이 아니라 확실한 연결이다 (1장)

본문은 “하지만 ~한다면”으로 시작한다. 오웬은 조건문이 가질 수 있는 두 뜻을 구분한다. 하나는 조건을 채워야 결과가 생기니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조건과 결과가 확실히 이어져 있다는 뜻이다. 그는 첫째 뜻을 단호히 물리친다. 바로 같은 사람들에게 로마서 8:1이 이미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본문은 둘째 뜻, 곧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것이다” 같은 확실한 연결이다. 다만 오웬은 이 연결이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수단과 목적의 관계라고 정밀하게 덧붙인다. 영생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므로, 받는 사람의 수고가 그 원인일 수 없다. 그러니 죄 죽이기는 구원을 따내려는 고행이 아니다. 이미 정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생명으로 가는 확실한 길을 걷는 일이다. 이 확실한 연결이 죄를 죽이게 하는 첫째 동기다.

1. 조건문의 두 뜻: 불확실 / 확실한 연결
2. 본문은 '확실한 연결' 쪽이다
3. 근거: “결코 정죄함이 없다”
4. 원인-결과가 아니라 수단-목적
5. 죄 죽이기는 구원을 따내는 고행이 아니다

로마서 8:1

신자에게는 정죄가 없으므로 “~한다면”이 구원의 불확실을 뜻할 수 없다

로마서 6:23

영생은 선물이다. 죄 죽이기는 원인이 아니라 수단이다

>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 7. 누가, 무엇으로: 신자가, 성령으로 (1장)

“너희가 죽이면”의 '너희'는 헬라어 동사 속에 들어 있다. 오웬은 이 '너희'가 신자라고 못 박는다. 곧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된 사람(로마서 8:1), 영 안에 있는 사람(로마서 8:9),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사람(로마서 8:10-11)이다. 이 의무를 회심 여부와 상관없이 아무에게나 마구 지우는 것은 자기의, 곧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태도의 열매라고 그는 비판한다. 여기서 강론의 첫째 명제가 나온다. 신자는 정죄하는 죄의 권세에서 확실히 풀려났지만, 평생 자기 안에 남은 죄의 권세를 죽이는 일을 자기 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이 일을 실제로 이루시는 주된 원인은 성령이시다. 그분은 신자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요, 양자의 영이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며 간구하시는 영이시다. 성령 없이 내 힘과 내가 만든 방법으로 죄를 죽이려 하면 그 끝은 자기의이고, 오웬은 이것이 모든 거짓 종교의 본질이라고 말한다.

1. '너희' = 정죄에서 벗어난 신자
2. 그래도 남은 죄와는 평생 싸운다
3. 아무에게나 강요하면 자기의의 열매
4. 주된 원인은 내 안의 그리스도의 영
5. 성령 없는 방법의 끝은 자기의다

로마서 8:9

'너희'는 영 안에 있는 사람이며,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신다

>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살리신다. 죄를 죽이는 힘도 그분께 있다

10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11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14-15

하나님의 영이자 양자의 영. 아들 됨과 이어진 성령이시다

14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26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며 간구하시는 성령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10:3-4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는 열심

3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요한복음 15:5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 [30]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31]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32]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칠 돌에 부딪쳤느니라

“죄를 죽이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한다.”

📜 8. "몸의 행실을 죽인다": 뿌리를, 평생에 걸쳐 (1장)

오웬은 의무를 세 질문으로 나눈다. 먼저 '몸'은 전반절의 '육신'과 같은 말로, 신체가 아니라 부패한 본성, 곧 내재하는 죄를 가리킨다. 몸은 그 본성이 자리 잡고 쓰는 도구일 뿐이며, 로마서 6:6의 '옛 사람', '죄의 몸'과 같은 뜻이다. 다음으로 '행실'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뜻하지만, 오웬은 그 행위를 낳는 안쪽의 정욕을 주로 겨냥한다고 본다. 도끼는 열매가 아니라 뿌리에 놓인다. 정욕은 마음속에만 있어도 늘 행동으로 나아가 온전한 죄를 이루려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죽인다'는 살아 있는 것에서 힘과 활동의 원리를 빼앗아 더는 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느냐고 물을 수 있다. 오웬은 그렇다고 답한다.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죽었고, 우리는 거듭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실제로 처음 죽었다. 그러나 그 죽음은 평생에 걸쳐 점점 완성되어 가므로, 신자는 쉬지 않고 힘써야 한다.

1. '몸' = 몸을 통해 움직이는 부패한 본성
2. 몸 자체가 악하다는 뜻이 아니다
3. 행실의 뿌리인 정욕까지 겨냥한다
4. 죽인다 = 힘과 활동 원리를 꺾는 것
5. 십자가에서 결정, 평생에 걸쳐 완성

> ★로마서 6:6

로마서 6:19

지체가 불의의 종이 된다. 몸은 죄의 도구다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마태복음 3:10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다. 행위가 아니라 뿌리를 친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갈라디아서 5:24

'정욕과 탐심' — 행실이 나오는 근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로마서 8:6

'육신의 생각' — '몸의 행실'과 같은 뜻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갈라디아서 5:17

성령과 육체가 서로 거스른다. 신자 안에 죄를 대적하는 새 원리가 있다

로마서 6:3-5

세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거듭날 때 실제로 처음 죽는다

3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 9. 약속: "살리라" — 내세의 영생, 그리고 지금의 활력 (1장)

이 의무에 붙은 약속은 생명이다. 이 생명은 전반절이 경고한 죽음의 정반대이며, 갈라디아서 6:8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말씀과 짝을 이룬다. 오웬은 이 생명이 내세의 영생만이 아니라고 본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 생명과, 그 생명이 주는 기쁨과 위로와 활력까지 포함한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데살로니가전서 3:8의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를 든다. 첫째 동기가 '죄 죽이기와 영생의 확실한 연결'이었다면, 둘째 동기는 여기서 나온다. 요즘 신앙이 메마르고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버려진 증거가 아니다. 내버려 둔 죄가 생기를 갉아먹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고, 성령 안에서 그 죄를 다룰 때 생기가 돌아온다는 약속이 있다.

1. '살리라'는 전반절의 죽음과 반대다
2. 내세의 영생 + 지금의 영적 생명
3. 기쁨·위로·활력까지 포함한다
4. 첫째 동기: 영생과의 확실한 연결
5. 둘째 동기: 지금의 생기와 위로

> **갈라디아서 6:8**
> 육체를 위해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둔다. '살리라'의 반대편
>
>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 **데살로니가전서 3:8**
> “이제는 살리라” — 지금 누리는 영적 기쁨과 위로도 생명이다
>
>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의 영적인 삶의 생명력과 능력과 위로는 육신의 행실들을 죽이는 것에 달려 있다."

- **착각과 진짜 비교판**

이것은 죄 죽이기가 아니다	이것이 죄 죽이기다
구원을 얻어 내려고 몸부림치는 일(칭의를 내 손으로 따내기)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자가 그 신분답게 살아가는 일(성화)
"~하면 산다"를 "못 하면 버림받는다"로 읽고 불안해하기	죄 죽이기와 생명이 확실히 이어져 있음을 믿고 그 길을 걷기
결심·규칙·벌칙을 늘려 내 힘으로 버티기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의지해 죄를 꺾기
드러난 행동만 멈추면 끝이라고 여기기	행동의 뿌리인 마음속 욕망까지 성령 앞에 가져가기
"십자가로 다 끝났다"며 손 놓기, 또는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내려 하기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시작된 승리를 평생 조금씩 완성해 가기

칭의는 단번에 바뀌는 신분이고, 성화는 그 신분 위에서 평생 자라는 삶이다. 두 가지를 섞으면 "넘어졌으니 구원도 흔들린다"는 불안에 빠지거나, "구원받았으니 싸울 필요 없다"는 방심에 빠진다. 오웬은 그 사이에서, 정죄 없는 자리에 선 사람이 성령과 함께 싸우는 길을 보여 준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죄 죽이기

칭의
하나님이 믿음을 근거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셔서 신분을 단번에 바꾸시는 일.

성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성령 안에서 실제 삶에서 점점 거룩해져 가는 평생의 과정.

내재하는 죄
거듭난 뒤에도 신자 안에 남아 계속 죄를 낳으려 하는 부패한 본성.

정욕(욕망)
성적인 욕망만이 아니라 명예욕·탐심·시기처럼 하나님을 거스르며 늘 행동으로 나아가려는 마음속 욕망 전체.

육신
우리 몸 자체가 아니라, 몸을 통해 움직이는 타락한 본성을 가리키는 성경의 말.

성령의 내주
그리스도의 영이 신자 안에 실제로 머물러 계시며 살리고 도우시는 것.

자기의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려는 태도로, 오웬은 이것을 거짓 종교의 본질로 본다.

옛 사람
내재하는 죄를 꾀와 힘을 가진 살아 있는 사람에 빗댄 성경의 표현.

수단과 목적
꼭 필요한 길이지만 결과를 만들어 내는 원인은 아닌 관계로, 죄 죽이기와 영생의 관계가 그렇다.

💬 **청년의 삶으로** ⌄

- 『죄 죽이기』는 신분(칭의)이 아니라 이미 믿은 사람의 삶(성화)을 다루는 책이다. 그래서 믿은 뒤에도 죄와 싸우는 것은 정상이다.
- 로마서 8:13의 다섯 요소(의무·대상·약속·수단·조건)가 책 전체를 떠받친다.
- “~한다면”은 불안이 아니라 확실한 연결이고, 영생은 끝까지 선물이다.
- 죄 죽이기의 주체는 신자이고 원인은 성령이시다. 그러니 이 일은 고행이나 자책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을 의지하는 길이다.
- 약속된 생명에는 내세의 영생과 함께 지금의 기쁨과 활력도 들어 있다.

📚 이 편의 장별 정리 노트

- 죄 죽이기 · 해제 — 『죄 죽이기』를 읽어야 하는 이유 (박문재)
- 죄 죽이기 · 저자 머리말
- 죄 죽이기 · 1장 죄 죽이기의 근거 본문: 로마서 8장 13절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오웬 『죄 죽이기』(CH북스, 박문재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 전문 텍스트판과 서재 정리본은 pdf.quritan.com 에 있습니다.